

# 협회소식

## 본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임시총회 개최



본회는 구랍 19일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전동용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이사, 지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전동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여년동안 본회는 6~7개 지부조직에서 9개 도협의회, 90여개 지부로 성장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회고하고,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국내 양돈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전동용회장은 협회 발전에 공이 큰 장민기회원(부천지부)과 김기화(서울지부), 장영일(괴산지부), 장명진(고창지부), 김명완(무안지부), 전제윤(영주,영풍지부), 이상대(부산,김해지부), 송명호(제주지부) 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심혜숙양(예산지부)과 김은미양(나주지부)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에 앞서 노영한 전무이사는 참석자들에게 지난 20여년간 협회가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과 협회 연혁을 설명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이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95년도 회비, 자조금 부과 기준(안)과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대의원들은 '95년도 회비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7만원씩 부과하기로 했으며, 자조금은 사육규모에 따라 1,000두 이하는 2만원, 1,001두 이상 5,000두 이하는 10만원, 5,001두 이상은 3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일반회계 3억5백만원, 홍보회계 4억 3천3백만원, 자조금회계 3억원, 제1검정소회계 7억3백만원, 제2검정소회계 5억2백만원 등 총 22억4천2백만원에 달하는 '95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협의했다.

대의원들은 특히 이 자리에서 '95년에 출범하는 WTO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입개방에서 국내 양돈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9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작성해서 금년 2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제출,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동용회장은 회의에 앞서 새로 도협의회장에 선출된 김병문 충남도협의회장과 김만식 철원지부장, 송동혁 제천시지부장, 김일선 해남지부장, 문성수 남제주지부장, 이윤희 충주중원지부장에게 인준서를 수여했다.

## 본회 이사회의 개최



본회는 구립 19일 오전 11시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9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협의했다. 전동용회장 주재로 1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일반회계 항간 전용(안), '95년도 회비·자조금 부과 기준(안),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타사항 등을 심의했다.

이사회회의는 일반회계 예비비 항의 예산 1천5백만원을 사업비 항으로 전용하도록 의결했다. 또 '95년도 회비를 1인당 7만원으로 하고, 자조금은 규모에 따라 1,000두 이하는 2만원, 1,001두 이상 5,000두 이하는 10만원, 5,001두 이상은 35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회비, 자조금 부과기준안을 심의, 원안대로 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총 22억4천2백만원에 달하는 '95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안)을 심의, 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사회회의는 '95년에 돼지고기 수출에 관한 업무와 직판장 설치, 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 “냉장육 유통기한 연장해선 안된다”

### 본회, 냉장육 유통기간 연장 관련 건의서 제출

본회는 지난 11월 25일 농림수산부에 미국의 냉장육

유통기한 연장 요구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미국의 육가공제품 및 냉장육 유통기간 연장 요구 보도와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위반으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한다는 등 전국의 양돈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본회는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 “미국의 냉장육 및 육가공제품의 유통기간 연장 요구는 부당하며 도저히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통구조는 냉장육을 유통할 시설, 기술 등이 불충분하므로 냉장육을 수입하여 장기간 유통될 경우 부패 및 변질되어 국민보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돼지고기의 수입은 개방이 되 있는 상태이나 유통기간을 연장해 주면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 대량 수입될 경우 영세 양돈농가는 대부분 도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냉장육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2일이 넘으면 냉동 또는 할인판매하는 입장에서 유통여건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냉장육을 수입하여 냉동유통하거나 덩핑판매하게 되면 냉동육수입에 비하여 외화낭비는 물론 국내 유통시장의 혼란으로 축산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밝히고 미국 육류업계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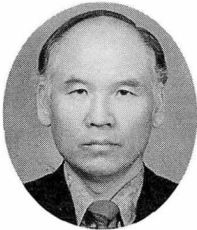
## 본회, '95 업무용 수첩 제작·배부

본회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양돈경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95 협회 업무용 수첩과 카렌다를 제작하여 회원과 각 지부 사무실, 축산 관련 기관, 단체에 배부했다.

업무용 수첩의 내용은 ▲ 본회 현황 ▲ 축산 관련기관·단체 주소록, 전화번호 ▲ 국내 양돈현황 ▲ 세계 양돈현황 ▲ 돼지 생산비 및 사육비 ▲ 양돈경영 관리

지표 ▲ 양돈관련 참고자료 ▲ 주요 전화번호 ▲ 장거리  
자동전화안내 ▲ 도량형 환산표 ▲ 전국 우편번호 ▲  
지하철 노선도 ▲ 지도 등을 담고 있어 양돈경영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다.

### 철원지부장에 김만식씨 선출



김만식  
지부장

본회 철원지부는 지부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김재철 전임지부장 후임으로 김만식회원을 새 지부장  
으로 선출했다.

신임 김만식지부장(55세)는 건국대 농축개발대학원  
을 수료했으며 현재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에서 1천5백  
두 규모의 철원종합축산은 경영하고 있으며 철원양돈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겸하고 있다.

### 제천지부장에 송동혁씨 선출



송동혁  
지부장

본회 제천지부는 이상길지부장 후임으로 송동혁 전  
지부장을 새지부장으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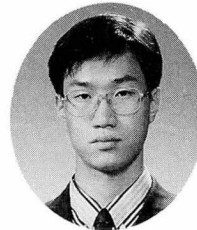
신임 송동혁지부장(54세)은 제천영농조합법인 대표  
를 겸하고 있다.

### 광양지부 사무실 이전

본회 광양지부(지부장 : 허도구)는 지난 3일 지부 사  
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전남 광양군 광양읍 칠성리 912-6번지
- ▲전화 : (0667)762-8655
- ▲전송 : (0667)762-1006

### 본회 신규직원 채용



추용진

본회는 지난 12월 12일 홍보부에 추용진(26)씨를 새  
로 채용했다.

추용진씨는 중앙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할 예정이다.

한편 홍보부에 근무하던 권상혁씨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다. 